혁신 · 도전으로 더 나은 미래 만들다

전주시, 2025년 한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시민 삶 촘촘히 챙기며 지역 발전 위한 노력 지속

전주시는 2025년 한해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담하게 혁신하고 도전하며 더 나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 특히 변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체감하는 시민들의 일상을 세심히 살피기 위해 더 많이 만나고 듣고,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먼저 시는 지난 2월 대한체육회 투표에서 국내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 경쟁에 나서게 됐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4월)에 이어 지난 10월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군산·김제·완주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는 전주권 신설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잇달아 거뒀다.

또한 2026년도 국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925억 원을 확보하면서 3년 연속 2조 원대 국가 예산확보에 성공했으며, 신규사업 예산 1129억 원을 확보하면서 전주 대변혁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 동력을 마련했다.

동시에 시는 지난해 말 시작한 종합경기장 철거를 완료하고, 지난 9월 전주컨벤션센터 기공식을 가지면서 수년간 준비해 온 대규모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또, 옛 야구장 부지에는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도 첫 삽을 뜨면서 전주 100년 미래를 이끌 경제·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1월부터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내 중심도로인 기린대로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는 기린대로 BRT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역세권 사업 재개 △역사도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 △교도소 이전을 위한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 착공 등 100만 광역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대표적으로 시는 강한 경제를 이끌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와 1:1 방문 면담 등의 노력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20개 기업과 2100억 원 규모의 탄소 산단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여기에 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에 선정돼 AI에 기반한 생활SOC 조성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 9월에는 33개국 16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세계 최초의 드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면 드론 축구 종주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 지난 9월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마무리돼 향후 옛 건물 철거와 함께 6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00억 원 규모의 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소비를 촉진했으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및 안심 연장 지원사업을 통해 총 2000억 대출 규모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며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시는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 외연을 확장하고자 새로운 관광자원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2월 미사용 방공호를 실감형 미디어 아트 시설로 변경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개관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6월 아중호수변에 새롭게 문을 연 아중호수도서관은 책과 음악 자연이 어우러진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했으며, 2024년 말 착공한 '독립영화의 집'에 이어, 2025년은 특성화 세트장을 갖춘 'K-Film 스튜디오' 조성에 착수하는 등 영화영상산업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3대 책 문화 축제인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독립출판북페어 전주책쾌 △전주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책 문화산업 발전과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했으며, △후백제 도성인 종광대 토성의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지정 △전통한지 후계자 양성 △한옥산업관 개관 등 전주의 역사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노력도 이어왔다.

무엇보다 시는 2025년 나눔의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힘써 왔다. 구체적으로 고립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시작된 △함께라면 △함께라떼&북카페에 이어 음식 나눔 봉사 공간인 '함께주방'이 3호점까지 문을 열면서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는 공간이 많아지고 있다.

끝으로 시는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시는 2025년 청년정책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인구청년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해 청년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청년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했다. 또, 월 임대료 만 원의 임대주택인 '청춘★별채'를 도입했으며, 청년활력수당과 교통비 지급 등을 통해 청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35개 동을 돌며 보다 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도시를 더 도시답게 만들기 위한 도전과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면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요즘, 전주가 당당한 전라도의 수도이자 시민 삶의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 도심 속 대표 호수공원인 덕진공원이 대대적인 정비를 마치고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돌아왔다.

사계절 머물고 싶은 덕진공원

열린광장 · 창포원 완공… 도심 속 대표 호수공원 자리매김

전주 도심 속 대표 호수공원인 덕진공원이 대대적인 정비를 마치고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돌아왔다.

특히 덕진공원은 기존 시민들의 산책 위주의 공간을 넘어 누구나 머무르며 보고 즐기는 체류형 문화·여가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확장했다.

전주시는 2025년에 추진한 창포원 조성과 열린광장(전통놀이마당) 조성을 끝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주요 관광기반시설 정비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열린광장 조성을 통해 공원 진입부의 시야를 가리던 둔덕을 정리하고 넓은 잔디광장과 원형광장을 조성해 개방감을 높였다. 또 원형광장 바닥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 문양을 새기고,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해 주·야간 언제든지 시민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열린광장에는 전통놀이마당도 함께 조성돼 전주시 대표 절기 행사인 단옷날 씨름 대회 등 전통문화 체험과 소규모 문화 행사 등 시민참여형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동시에 시는 덕진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창포원'을 전통적인 친수공간으로 재조성했다.

동시에 시는 2025년 수질·생태 회복에도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외부 수원 유입이 적고 물 흐름이 정체된 덕진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연화교 서측 호수 퇴적물 준설 △광촉매 기반 수질정화 등을 병행했으며, 그 결과 호수의 탁도가 개선되며 조류 발생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26년 새해에도 덕진공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탄소소재 · 부품 산업 '특수분류체계' 첫 제정

반도체와 이차전지, 방산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반인 탄소소재·부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특수분류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는 「탄소소재·부품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제정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약 9년 만에 마련된 제도적 성과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난해 4월부터 탄소소재·부품 산업의 정의를 정립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한 특수분류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그 결과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6대 핵심 탄소소재와 장비, 복합재용 모재(매트릭스)를 포함한 총 8개 대분류 체계를 구축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기업심리, 제조 · 비제조업 모두 위축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87.4로 하락… 비제조업은 1월 전망 급락

전북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연말을 맞아 다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업심리지수가 기준선(100)을 크게 밑돌며 경기회복 기대감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전북은행이 2025년 12월 전북지역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7.4로 전월보다 3.8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2026년 1월 전망지수는 86.1로 소폭(0.5포인트) 상승해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제조업 CBSI는 94.4로 상승해 전북과의 체감경기 격차가 확대됐다.

제조업 심리지수 하락은 자금사정(-1.6p), 제품재고(-1.3p), 업황(-0.4p), 생산(-0.4p), 신규수주(-0.2p) 등이 복합적으로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제조업 기업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경영 애로는 내수부진(35.6%)으로, 전월보다 5.6%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16.4%), 자금부족(9.6%), 인력난·인건비 상승(9.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커진 반면, 자금부족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응답 비중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 상황은 제조업보다 더 부진했다. 12월 비제조업 CBSI는 78.4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했으며, 2026년 1월 전망지수는 71.9로 무려 7.4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비제조업 CBSI가 12월 기준 93.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전북 비제조업의 체감경기 위축이 두드러진다.

비제조업 심리지수 하락에는 채산성(-0.9p), 업황(-0.4p), 자금사정(-0.4p)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제조업 기업들이 꼽은 최대 경영애로 역시 내수부진(30.8%)이었다. 이어 인력난·인건비 상승(15.5%), 자금부족(11.3%), 경쟁 심화(8.8%) 등이 뒤를 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내수부진과 계절적 비수기 요인에 대한 부담은 커졌으나, 인력난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응답은 감소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전북 기업들의 신중한 시각이 확인됐다. 12월 제조업 업황BSI는 58로 하락했으며, 비제조업 업황BSI 역시 55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자금사정과 채산성 지표도 동반 하락해 기업들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오상근 기자

제14대 전북은행장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선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달 30일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박춘원(59)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제14대 전북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박 신임 은행장이 JB우리캐피탈 대표 재임 기간 동안 탁월한 경영 성과와 검증된 업무 역량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온 점을 바탕으로, 전북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신임 은행장은 2021년 JB우리캐피탈 대표 취임 첫해 당기순이익 1,705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239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우수한 실적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중고차 금융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성과를 냈다.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 절차가 진행됐다. 전북은행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 결과 법적 리스크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해당 사안이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종 선임을 확정했다.

한편 박춘원 신임 전북은행장은 2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오상근 기자